

Evaluation of dysphagia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myopathy

¹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²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Hospital, and
³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un Hae Chang¹, Whang Kim³, Hye Won Kim¹, Byung Yong Choi¹, In A Choi¹, Ki Chul Shin^{2,3}, Eun Bong Lee^{1,3},
Yeong Wook Song^{1,3}, Eun Young Lee^{1,3}

Objective: To determin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he validity of VFSS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in patients with dysphagia and inflammatory myopathy. **Method:**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ith inflammatory myopathy who underwent VFSS stud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etween January 1, 2000 and June 1, 2011. **Results:** A total of 29 patients were diagnosed as inflammatory myopathy and underwent VFSS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because of dysphagia symptom. There were 11 males and 18 females, and average age at diagnosis was 42.9±19.0 year-old. 5 patients were juvenile dermatomyositis and their average age was 9.6±4.6 year-old. Only 1 patient was inclusion body myositis. 86.2 % (25/29) of patients had dysphagia at onset of the disease. 13.8 % (4/29) of patients developed symptom after diagnosis and average of duration between diagnosis and initial dysphagia manifestation was 31.5±23.8 month. Among 23 patients with dermatomyositis, 8 patients diagnosed any kind of cancer and 2 patients showed delayed dysphagia symptom.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xistence of malignancy and delayed manifestation of dysphagia. Except one patient who were heavy ex-smoker (40PY) and had COPD, none of 28 patients showed lung involvement. He complained of dysphagia at onset of disease with normal result in initial VFSS study. But follow-up study which was performed because of persisting symptoms, showed abnormal findings such as incomplete epiglottic closure. ASHA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scale (Crary and Groher scale) was available for 20 patients and their average scale score was 4.2±2.0. **Conclusion:** Most of patients with inflammatory myopathy and dysphagia tend to have symptoms at onset of disease and to show pulmonary involvement less frequently. In this study,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revealed abnormalities in all patients, and this result suggests that VFSS is good evaluation method for patient with dysphagia and inflammatory myopathy.

항암제 관련 관절병증에서 항류마티스약제의 치료 효과: 다기관 개방 표지 예비 연구 결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¹, 가천대학교 길병원², 인하대학교 의과대학³,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⁵,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⁶, 중앙대학교 의과대학⁷

*김현아¹, 최효진², 백한주², 임미진³, 박 원³, 이지수⁴, 최성재⁵, 윤보영⁶, 최상태⁷, 송정수⁷, 고보람¹, 서창희¹

서론: 항암제와 관련된 관절 증상은 암의 치료와 관련하여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으나, 그 보고가 제한적이며 주로 유방암과 관련된 보고였다. 이에 연구자 팀이 항암제 투여 후 관절 증상 또는 관절염(이하 항암제 관련 관절병증)이 발생한 18명을 대상으로 19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고한다. 항암제 관련 관절병증의 치료에 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체계적으로 적용된 치료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항암제 관련 관절염의 치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항류마티스약제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항암제 관련 관절병증의 치료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치료군과 항류마티스약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치료군(이하 항류마티스약제 치료군)으로 3개월 간 치료 후 치료 반응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7개의 3차기관에서 무작위 개방 표지 임상 시험을 시행하였다. 총 80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으며, 항암제 관련 관절병증의 질병 활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압통관절수, 부종관절수, 시각통증등급, 조조강직, 적혈구 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 및 C-활성단백을 측정하였다. **결과:** 65명(81.3%)의 환자가 여자였고, 평균 발병연령은 51.43±9.2세였다. 42명이 유방암 환자였고, 11명이 림프종, 7명이 위암이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된 약은 cyclophosphamide, adriamycin, 5-fluorouracil, aromatase 억제제 순이었다. 관절 증상은 첫 항암제 투여 8.54±13.32 개월 후에 발생하였다. 환자들은 평균 6개의 압통관절, 4.5 시간의 조조강직이 있었다. 80명의 환자 중 34명이 스크리닝 및 추적관찰 완료하였으며 14명이 항류마티스약제 치료군 20명이 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 치료군으로 3개월간 추적관찰되었다. 항류마티스약제 치료군과 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 치료군에서 치료 전 질병활성도를 비교하였을 때 두 군간에 압통관절수, 부종관절수, C-활성단백 등은 차이가 없었으나 ESR이 항류마티스약제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30.86±23.35 mm/hr vs. 13.16±9.31 mm/hr, $p=0.003$). 치료 3개월 후 두 군 모두에서 압통관절수 및 시각통증등급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항류마티스약제 치료군에서 ESR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항류마티스약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모두 항암제 관련 관절병증의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예비 연구 결과는 향후 진행할 항암제 관련 관절병증의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다.